공공시설 요금 감면 확대

광주, 3자녀 이상 가정에

광주시는 21일 "3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광주은행 아이사랑카드 사업과 동시에 청소년수련관 등 8개 기관으로 출발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시립미술관 등 모두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은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신청, 발급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시립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무료, 염주체육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체육시설 수강료 10-30% 감면, 광주디자인센터 체험관·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 수강료 10-20% 감면, 버스·지하철 만 6세 이하 어린이 무임승차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반 국민 전자여권

25일부터 전면 발급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천원이다.

/연합뉴스

'인간 광우병' 감시 강화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른바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지정 전염병(장관 고시로 지정)으로 분류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와 vCJD를 제3군 전염병(법률로 지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도교육청, '미디어 파크' 조성 부지 매각 협상 1년째 난항

문화중심도시 조성 차질 우려

광주市, 200억 제시에

도교육청 "314억 달라"

광주 문화수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핵심 부지인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대한 매각협상이 1년여를 넘게 진행되면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초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남도교육청 부지(3만6천938㎡)를 인수, 첨단 문화시설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도교육청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크'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시각미디어 문화권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파크'는 상호소통이 가능한 첨단·미래형 놀이공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기획, 전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0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매입 대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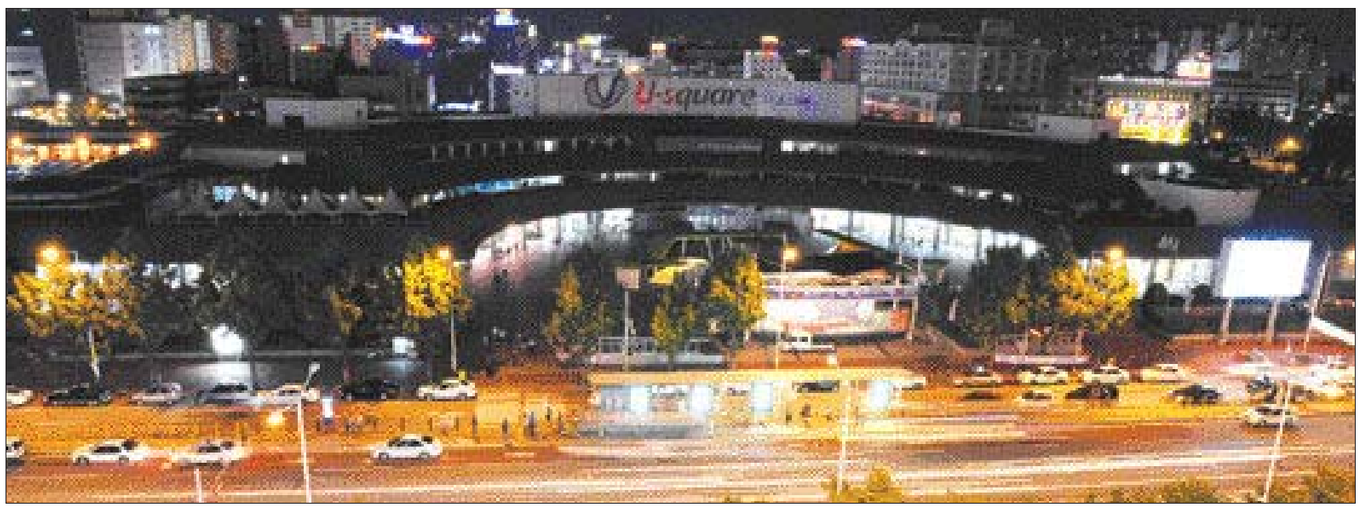
시는 도교육청 청사 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외문화벨트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매각대금으로 200억원을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체 감정평가를 근거로 부지 매각대금을 314억원으로 결정, 양 기관은 무려 114억원이라는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난해 협상이 여의치 않자 광주시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일반 매각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여기에다 도교육청은 당초 청사 이전비용을 현 부지를 팔아 조달하려했으나, 지난해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이전신축비용을 지원받게 돼 부지매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인터랙티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각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청사를 연수원이나 정보원의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며 매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 착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에너지절약 전등끄기 캠페인 광주지역 5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밤 9시부터 5분간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등 끄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이 열린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옛 광천터미널) 건물의 전등이 승객들이 이용하는 1층 터미널을 제외하고 모두 꺼져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황당한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인사

교육위원 눈치보기 급급 발표 미뤄 '빈축'

교원 및 교육 전문직을 위한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각 시·도교육위원 눈치보기에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정기인사 발표가 교육위원 브리핑을 핑계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결재도 끝난 인사결과를 교육위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는 데다, 인사 당사자들에겐 한 시라도 일찍 알아야 할 사항이어서 어이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경기, 경남 등 대부분 지역의 교육청은 교과부가 공문을 내려보낸 다음날인 21일 오전 일제히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오전에 하기로 했던 정기인사 발표를 오후 3시로 늦추더니, 다시 다음날인 22일로 연기했다. 21일 오후에는 기관장 등 일부 명단만 겨우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의 정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인사 규모가 경기나, 경남 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리 작업이 늦어진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남도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시·군간 인사교류가 잦은 전남의 경우 해당 교원들이 하루라도 일찍 결과를 알아야만 인사에 따른 이사 준비 등 충분한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역시 안팎에서 '하루 늦은' 인사결과 발표는 교육위원 브리핑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인사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교육위원들에게 먼저 '보고'하는 일이 관례화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부탁한 교원 및 공무원들의 인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서부교육장 양세열씨

광주시교육청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서부교육청 교육장에 양세열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교육공무원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명단은 22일 발표된다.

교육장 승진으로 자리가 빈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에는 김명자 일동초 교장이, 교육정보원장에는 이용일 교육정책과장이, 학생교육원장에는 김석중 과학기술정보화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교육정책과장에는 박종국 화정남초 교장이, 과학기술정보화과장에는 박병철 학생교육원장이 자리를 옮긴다. /정상필기자 c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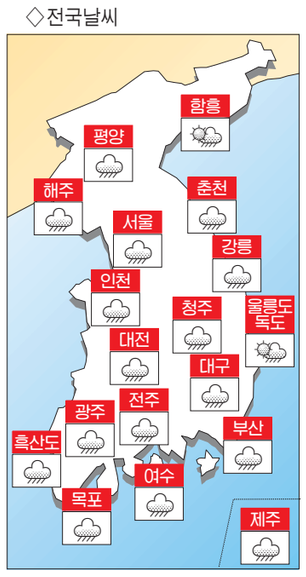
가을향기 나는 비

8월 22일 (음 7월 22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비가 오겠다.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3~27℃
목 포	흐리고 비	23~27℃
여 수	흐리고 비	23~26℃
완 도	흐리고 비	24~27℃
구 례	흐리고 비	21~26℃
해 남	흐리고 비	24~28℃
장 흥	흐리고 비	23~26℃
고 흥	흐리고 비	23~27℃
순 천	흐리고 비	21~27℃
영 광	흐리고 비	23~27℃
진 도	흐리고 비	23~27℃
전 주	흐리고 비	22~27℃
남 원	흐리고 비	21~27℃
흑산도	흐리고 비	21~2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목 포 밀물 05:25 18:05 썰물 10:37 23:05
여 수 밀물 12:30 --:-- 썰물 06:00 18:22

▲해뜸 05:57 ▲해짐 19:13 ▲달뜸 21:55 ▲달짐 11: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 씨						
최저/최고	22/29	21/30	22/30	22/30	22/30	22/29

성인 남자 흡연율 30%대 진입 초읽기

작년보다 1.6% 하락 40.4%

성인 전체 흡연율도 21.9%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0%대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올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보다 1.6% 떨어진 40.4%를 기록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2년만 해도 75.1%에 달했으나 2000년 67.6%, 2005년 52.3%, 2006년 44.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흡연율은 30%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 전체 흡연율도 21.9%로 지난해보다 1.1% 떨어졌다. 국민 10명 중 2명만이 흡연자라는 의미다. 지난해 4.6%로 높아졌던 여성 흡연율 역시 올 상반기는 3.7%로 하락했다. /연합뉴스

탤런트 이언 오토바이 사고 사망

모델 출신 탤런트 이언(27·본명 박상민)이 21일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언은 이날 새벽 KBS 2TV 드라마 '최강칠우'의 종방연에 참석했다 귀가한 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다 변을 당했으며,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발인은 23일로 유해는 고양시 벽제승화원에서 화장한 후 고인의 고향인 부산에 안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그는 지난해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통해 인기를 모았으며 MBC 드라마 '누구세요', KBS 2TV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